

숨은그림찾기 <157>



찾아(보)세(으) 열대어, A자, 갈매기, 국자, 슬리퍼, 짐자리, 서툰족, 바늘, 송사리

하느님과 골프

하느님이 골프를 치러 처음으로 골프장에 나갔다. 하느님은 캐디에게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물었다. "저기 깃발이 보이시오. 그곳을 향해 클럽으로 볼을 치면 됩니다." 하느님은 "그거 아주 단순하군"하며 멋지게 스윙, 볼을 깃대에서 10cm 지점에 놓았다. 하느님이 다시 물었다. "이제 어떡하지?" "볼을 홀컵에 넣으면 됩니다." 캐디의 대답이 떨어지자 하느님이 성을 냈다. "아니 그럼 처음부터 홀컵에 넣으라고 했으면 그렇게 했을 것 아닌가!"



지난주 정답

국자, A자, 새집, 제비, 바늘, 촛불, 열대어, 송사리, 담배 파이프

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들을 찾아보세요. 찾은 사물을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 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보내실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당첨자: 양윤미(광주시 남구 월산동) 이항범(영광군 영광읍 단주리)

아하! 오늘이 바로 그날

2001년 1월2일 중국~대만 뱃길 열려

새해를 맞는 설렘으로 들떠있던 2001년 1월 반세기 동안 막혀 있던 중국과 대만 사이의 뱃길이 열렸다.

2001년 1월2일 오전 도쿄 참배단 500여명을 태운 여객선이 대만 최전선 섬 마쭈다오 항을 출발한 지 3시간 여만에 중국 푸저우에 도착했다. 곧 이어 진먼다오에서 출발한 타이후호도 진먼현 공적자들 190여명을 싣고 중국 사면에도 도착했다. 앞선 새해 첫날인 1일에는 대만 여객선이 대만 진먼다오에서 중국의 사면으로 항해하던 중 악천후를 만나 곧바로 회항하기도 했다.

2001년 1월 2일 두 여객선의 도착으로 1949년 국민당 정부가 공산당 정부와의 내전에서 패해 대만으로 쫓겨오면서 고수했던 중국과의 '3불(불접촉·불타협·불타협)정책'을 넘어 반세기 만에 양안(兩岸·중국과 대만)간 직항길이 열리게 됐다.

이날 항해는 전면적인 직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양안간의 교류(통상)·운항(통항)·우편왕래(통우) 등 '소3통'이 실현했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중국은 1979년부터 대만에 '3통'의 전면적인 시행을 주장하면서 흡수 통일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3불정책'을 고집했던 대만은 2000년 5월 천수이볜 총통이 취임한 이후 '3불정책'을 포기 하며 '소3통'을 주장했다. '소3통'은 중국 정부가 양안 관계 개선을 위해 주장한 전면적이고 직접적인 교류를 뜻하는 '대3통'을 실시하기에 앞서 중국과 인접한 일부 섬들에 한해 우선적으로 3통을 실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7년 후인 지난 2008년 12월15일 화물선 직항 재개를 시작으로 여객기의 정기운항과 우편 교류가 시작되면서 '대3통'시대가

개막했다. 지난 5월 취임한 대만의 마잉주 총통은 '타이완 독립 노선'에 벗어나 '신(新) 3통' 정책을 추진하며 친 중국 노선을 표방했다. 그 결과 지난 15일 오전 상하이 푸둥공항과 타이베이 타오위안공항을 출발하는 항공편을 시작으로 주말에만 허용되던 항공편이 매일 정기적으로 운항하게 됐다. 이외에도 매달 화물기 60편이 운항되며 해상 직항을 위해서 중국과 대만 각각 63개와 11개 항구가 개방되는 등 화물선 운항도 본격화 됐다.

중국의 8개 도시와 대만의 5개 도시를 대상으로 양안을 잇는 등기·특급우편 및 우체국 송금 업무를 포괄하는 우편 교류까지 실시되면서 양안의 전면적인 교류를 의미하는 '대3통'의 시대가 시작했다. 중국은 '대3통'시대를 연 직후인 지난 23일에는 전세기 편으로 관다 '황판'과 '위안위안'을 대만에 보내 급속히 가까워진 양안 관계를 과시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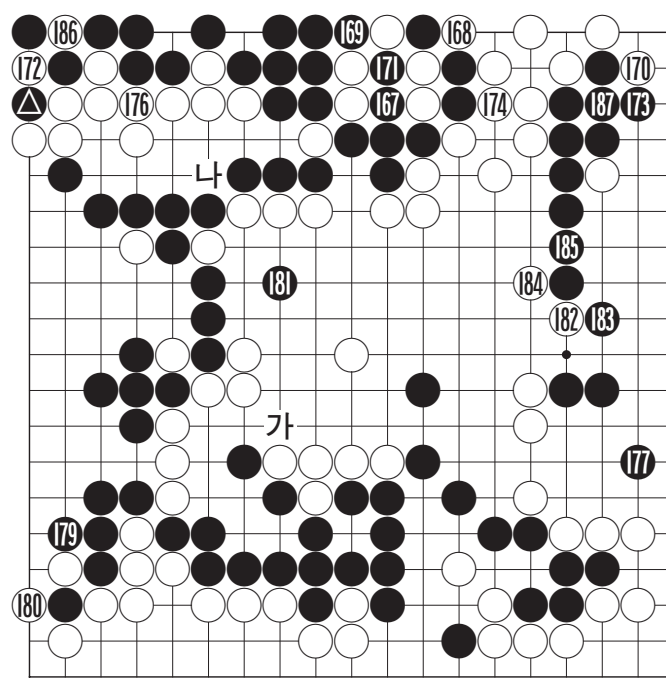
2001년 1월2일 대만 마쭈다오를 출발한 여객선이 중국 푸저우에 도착하면서 반세기만에 양안의 뱃길이 열렸다.

제89회 전국체전바둑대회

냉정하고 완벽한 마무리

일반부 결승 9보 (167~187)

白 송홍석 7단 黑 이상현 6단 (경기) (서울)



송홍석이 연속해서 승부수를 날리며 맹활약한 것처럼 보였으나 아직도 좌상귀의 백 대마가 패에 걸려 사경을 헤메고 있다는 것이 현재의 형세를 잘 말해주고 있다.

이상현은 연구생 출신답게 현재의 형세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었다. 굳이 좌상귀를 잡자고 하면 중앙에 '가'로 두는 패갑 등이 몇 번 있으나 손해패를 쓰는 모험을 피하며 가장 안전하게 흑 167로 들어가고 171까지 백 두점을 잡아버린다. 이것은 나중 백 '나'로 끊어오는 수를 방지한 안전책이기도 하다.

송홍석은 초읽기에 몰리면서도 백 170으로 몰고 174로 따내는 등 패를 방지하고 최

대한으로 버티고 있다. 이쯤되면 패를 이기고 싶은 오기가 날 법도 한데 이상현은 패를 하지 않고 냉정하게 흑 181로 중앙을 지우고 흑 187로 작아보이는 패를 이으며 승리를 선언하는 태도다. 잔 승부가 많은 치열한 연구생들의 실전에서 수많은 경험을 쌓은 것이 보여지는 마무리다.

이쯤해서 계산을 해보면 반면으로 흑이 10집 이상 남기는 형세로 변수가 전혀없는 국면이다.던져도 무방한 국면으로 이후의 수순은 총보를 보기 바란다. 175-178-172.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대한주택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

EL DORADO 엘도라도리조트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31일(음 12월 5일 乙丑)

Table of daily horoscopes for December 31st, 2008, listing zodiac signs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s.

Advertisement for DermaPlast skin care products, featuring a woman's face and contact information.

굿모닝 잉글리쉬 <1222>

You might try it. 한번 시도해 보지.

A: Where do you do your banking? B: Bank of America. Why? A: I'm looking for a bank. B: Oh, I like it pretty well. You might try it.

A: 너는 어디에다 예금을 하니? B: 아메리카은행인데, 왜? A: 은행을 몰색 중이거든. B: 아, 나는 지금 은행이 맘에 들거든. 한번 거래해봐.

\* bank : 은행에 예치하다 \* 어느 은행과 거래하니? = Whom [Who] do you bank with? \* look for ~ : 을 찾다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오우 니혼고 <1222>

猫(ねこ)をかぶる 내용 떴다.

A: 鈴木(すずき)さん, 男(おとこ)にもてますよね. B: 彼女(かのじょ)はいつも猫(ねこ)かぶってるからでしょ. A: えっ, そうなんですか. B: そうですよ, 男子ってそういう女が好き(す)きなんですけどね.

A: 스텝씨 씨는 남자에게 인기가 많네요. B: 그녀는 언제나 내소 떴고 있으니까 그렇죠. A: 에, 그래요? B: 네, 남자란 그런 여자를 좋아하더라고요.

猫(ねこ)をかぶる : 직역하면 '고양이를 쓰다'가 되는데 이 관용구는 그런 뜻이 아니라 '얌전한 체 하다, 내용을 떴다'라는 뜻이랍니다.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 wo.to ☎ 228-2545

니하오 쑹구위 <299>

你要什么? 뭘 원하세요?

A: 你要什么? Ni yao shenme? B: 我要一杯咖啡, 一杯可乐. wo yao yi bei kahouyi bei kele.

A: 还要别的吗? Hai yao bie de ma?

B: 不要了. Bu yao le.

A: 뭘 원하세요? B: 커피 한잔하고 콜라한잔이요. A: 또 원하시는 거 있으세요? B: 없어요. 커피 [kahou] 콜라 [kele] 콜라 [kahou] 콜라 [kele] 원요없다, 원하지 않는데

<광주중국어학원(상무지구 금호대우A 앞)> ☎ 383-1605

한자 이야기 <939>

奇貨可居(기화가거) 기이할 기, 재화 화, 옳을 가, 있을 거

기화가거(奇貨可居)는 진기한 재물은 잘 보관해 두어야 한다는 뜻으로, 진귀한 물건을 사 두었다가 훗날 큰 이익을 얻게 됨을 비유한다. 즉 좋은 기회를 기다려 큰 이익을 얻음과,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을 것을 강조하여 '물실호기(勿失好機)'라고도 한다.

전국(戰國)시대 말, 한(韓)나라의 장사꾼 여불위(呂不韋)가 조(趙)나라의 한단(邯鄲)으로 장사를 하러 갔을 때, 진(秦)나라 왕의 손자인 자초(子楚)가 볼모로 잡혀 있었다. 자초는 20여 명의 서술 왕손에 불과했지만 소왕(昭王)의 아들 안국군(安國君)에게는 적자가 한 명도 없어 잘만하면 임금에 오를 수도 있는 인물이었다. 여불위는 '이것이야말로 기화(奇貨)다. 사두면 훗날 큰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여기고 곧 가서 자초를 만나 자초를 기약하였다. 그 후 많은 돈을 써서 진나라 안국군의 정비(正妃) 화양부인(華陽夫人)에게 환심을 사서 자초를 양자로 삼게 하였다. 마침내 여불위의 의도대로 자초는 임금 자리에 올라 장양왕(襄陽王)이 되었고 여불위는 자기의 애첩 조희(趙姬)를 자초에게 시집보냈다. 거기서 태어난 아이가 뒷날 진시황제(秦始皇帝)가 되었다. (史記, 呂不韋傳)

<한예원(韓睿媛)>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